



THE GOSPEL NEWS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3年12월1일 (금) 제833호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양영우 · 편집인 / 정수환

인쇄소 靑丘文化社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도다

<누가복음 2:11>

윤 중 현 목사 (아카시교회)



Merry Christmas !

크리스마스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주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질 정도로 인간에 있어서 위대한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씀은 원래 그리스도와 예배의 의미를 가진 마스라는 합성어로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즉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예언되어진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지나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축제,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축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눅 2:11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크리스마스의 중심과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인류에게 있어서 축복의 날이며, 큰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세계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의 날, 천사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있던 목자에게 세상에서 최초의 구원의 탄생을 전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구세주가 사회적인 신분을 관계하지 않고 모두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1:21)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넌크리스천에게서도 큰 축복의 날이며, 큰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마1:20하반절에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탄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이 죄가 전혀 없어야 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성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마 1:23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탄생하신 구세주입니다. 이 분이야말로 주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롬3:24) 하나님과 대적하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롬3:25) 죄인이었던 내가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에게 속하는 의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롬3:26)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다시 그 구원에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2000년 쯤 전에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여, 우리들의 구원을 실현해 주신 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년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에게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마스,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원한이나 불평으로 원망하기 보다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웃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의 크리스마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韓日対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では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

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전국청년대회

창립60주년 기념집회 개최 전국 청년들과 지속적 연대를 확인

2023년 11월 3일 청년회 전국협의회(전협)는 주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지원으로 60주년 기념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는 새롭게 총회장이 된 양영우목사의 설교 “회복이 찾아오는 전협” (행3 : 1~10)이 있었고, 각 교회에서 청년의 수가 적어지는 가운데, 신앙과 기도로 극복하도록 격려하였다. 또 새로이 부총회장이 된 신대영장로 외에 관동과 중부지방 등 먼 곳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장로, 집사, 전협 OBOG들이 축하와 격려를 위해 발걸음을 옮겨주었다. 청년들은 전국에서 모여 17명이 참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약 50여명의 참가였다. 먼 곳에서 찾아온 분들, 관계자 분들에 이 자리를 빌어 전협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

전협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특강에서는 오사카교회 양양일장로가 ‘전협 60주년과 그 의의에 대하여’ 라고 정리된 자료를 이용해 기념대회의 의의를 이야기하였다. 강연에서는 1933년 개최된 재일조선기독교교회 면려 청년회 총회가 전국청년회의 시작이자 재일대한기독교교회로서는 전국청년회 90주년을 맞았다고 회고했다. 민족성도 국적도 다양해진 오늘의 <전협>이 어떤 미션과 비전을 갖고 힘써 나갈지 묻는 기회였다.

전협 실행위원으로부터는 금년도에 주력한 <전국 교회 방문>의 보고 외에, 크리스천 청년들의 삶을 그린 촌극 <크리스천 청

년의 삶이라니??>의 피로, 청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자」 라는 찬양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사카 교회 봉사부의 협력으로 다과회를 통해 교류를 심화시켰다.

전국적으로 청년들의 교회 이탈이 많아지는 가운데, 기념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였다. 위기 상황인 것은 변함없지만 교류를 통해 임원들이 나눈 것은 전국에는 아직도 호소에 반응해 주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전협은 개교회 방문으로 만난 청년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이번 기념집회를 계기로, 더욱 주님의 힘을 받아 청년활동의 큰 움직임이 생기기를 바라며 활동하고자 한다. “전국 신앙의 친구와 함께 만나는 청년들의 터전” 조성을 위해 전국 교회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enkyokccj@gmail.com.

(보고 : 오사카교회 한선영전도사)



전국여성대회

제11회 재일·일·한NCC여성 위원회 연대 교류회의 개최

신형코로나 감염증의 팬데믹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제11회 제11회 재일·일·한NCC 여성위원회 연대 교류회의가 2023년 11월 15일(수)~17일(금), 재일한국기독교교회관(KCC)에서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자로서, 소외된 곳에서 손을 잡는 우리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최미혜자 부회장으로부터 「우리 재일이 호스트로서 처음 이 연대교류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에 스텝들과 함께 큰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NCC J 여성위원회 기타무라 케이코 위원장으로부터, 「6년만의 연대 교류 회의를 다 함께 모여 개최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 한다」 라는 인사말로 환영하였다. 이에 답하여 NCCK위원장 김주현 사관은 「크리스찬 여성들이 서로의 존중과 신뢰 가운데 함께하며 착실히 그 관계를 긍정적으로 쌓아온 결과들에 다시 한번 놀라며 하 나남께 감사드린다」 라고 감사의 인사가 있었다.

재일·일본·한국의 기독교 여성은 1996년 제1회 한·일(일·한) NCC 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로 시작하여 2003년에 제5회 한·재일·일NCC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로 확장하여 만남을 이어 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과제를 공유하고 상호교류하며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기 위해 함께



걸어왔다. 이번 회의는 한국 9명, 재일 23명, 일본 20명이 참가하여 개최예배, 주제강연, 패널토론, 환영교류회, 현장탐방 및 영화상영, 발제, 조모임과 나눔, 성경연구, 선언문 채택, 폐회예배 등의 순서를 진행하였다.

2박3일 동안 재일·일본·한국NCC여성 위원회 연대 교류회의를 통해서 함께 채택한 선언문 일부와 실천사항을 공유한다. 재일대한기독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선언문>

우리는 이번에 가혹한 차별 가운데 있는 재일한국인/조선인들의 소외된 삶을 듣게 되었다. 격동하는 역사와 부조리한 사회에서 살아낸 her story가 our story가 되어 새로운 깨우침을 얻게 되었고, 회개와 희망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우리는 ‘주님께 접붙인 바 된 자’ 로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실천사항>

1. 우리는 고정관념과 틀에서 벗어나 성경을 읽고 성찰한다.
2.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연대한다.
3. 우리는 교회개혁을 위하여 여성들이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한다.
4. 우리는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한 공동행사를 진행한다.
5. 우리는 재일한국인/조선인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인권침해와 차별, 특별히 조선학교(우리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행동한다.
6. 우리는 모든 전쟁과 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며, 특별히 일본국 헌법 제9조(‘일본 평화헌법9조’)를 지키고 개악을 반대한다.

2023년 11월 17일

제11회 재일·일·한NCC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 참가자 일동

(보고 : 전국교회여성회 회장 송복희)

일본그리스도교회와의 선교협력위원회를 개최

강사맞아랩워크숍을 진행, 각자 피로

2023년 11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그리스도교회와의 선교협력회의가 일본그리스도교회 카시와기교회(도쿄 오쿠보)에서 열렸다. 양측 목사, 장로, 청년 등 약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11시부터 시작된 개회예배에서는 장경태 목사(부총회장)의 사회로 오오이시 슈헤이 목사(일본그리스도교회 대외협력위원)가 ‘눈빛에 은혜를, 믿음에 보답하는 연대를’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오오이시 목사는 역사적 배경이 다른 양측이 시선을 주고받는 만남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윤리를 드러내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 후, 양영우 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찬 후 오후에는 래퍼이자 시인인 Fumi(곽정훈) 형제(제일대한기독교회)가 랩 워크숍을 진행했다. 각자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시로 써서 랩을 했다. 자신이 쓴 시를 음악에 얹어 녹음하고, 작품으로서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억속에 잠자고 있었던 각기의 이야기들을 표현한 시가 본인 안에 머물지 않고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들어나와 타인과 공유됨으로써 따뜻함과 희망이 넘치는 음악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나누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 선교협력위원회에서는 양측의 활동 보고 후 목회자 부족 현황과 선교사 수용 등, 공통의 선교 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다음 협의회 일정을 2024년 11월 21일(목)로 정하고 폐회했다. (보고 : 김신야목사)

오사카교회

강부삼 명예장로 소천

시온성가대원으로 봉사등 교회 발전에 공헌



오사카교회 강부삼 명예장로가 2023년 9월 30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오사카교회에서 정연원목사의 집례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향년 82세.

고인은 1941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3년에 김덕성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1998년 장로로 장립된 후 오사카교회 시온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등 교회 발전에 기여했다.

오사카교회

김수남 명예장로 소천

오래 재일본한국YMCA 총무로 활약



오사카교회 김수남 명예장로가 2023년 11월 15일 지병으로 소천하여, 오사카교회에서 정연원목사의 집례로 장례식을 거행했다. 향년 73세.

고인은 1949년 일본에서 태어나 평생 오사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1998년 장로 장립을 받았다. 제일대한기독교회 총회 연금위원장과 마이너리티선교센터 이사장을 역임했고, 오랫동안 재일본한국YMCA 총무로 활약했다.

《사과와 정정》

복음신문 제10월호 4면의 기사중 게재한 사진설명이 틀렸으므로 이하와 같이 사과하며 정정합니다.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과 함께 종교자 평화 넷 원내집회에서. 장소:중의원 제2 의원회관. 2023년9월21일.”

관서지방회

추수감사절 축제 개최

여성부·장년부·청년부 공동 주최로

지난 10월 15일(주일) 오후 3시부터 오사카북부교회에서 제 12회 추수감사절 페스티벌이 관서지방회 여성부·장년부·청년부 공동 주최로 대면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모두가 연결 알파가 되자’ 라는 주제로 12개 교회에서 110명이 참여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나누었다.

1부 <예배>에서는 히라오카교회 배정애목사가 ‘즐거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시편 100 : 1~5)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2부 <강연>에서는 지난해 교토남부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한 아라이 유키 목사가 ‘함께 나누는 주님의 은혜’ 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에서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축복과 책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 자신의 성장과정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엮어 이야기하고, 메시지 말미에 항상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 ‘공연’ 에서는 히라노교회 베트남 청년회의 찬양으로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며 약 20분간 은혜의 시간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서지방회 소속 여성 목사가 예배와 강연을 맡았고, 베트남인 청년회가 공연을 했다. 재일동포와 새터민, 일본인을 가리지 않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함께 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변화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추수감사절에 여성부, 장년부, 청년부 공동주최로 힘을 합쳐 일본거주자들을 위한 선교활동을 펼치며 관서지방회뿐만 아니라 총회도 함께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보고 : 관서지방회 장년부)



은퇴목사 동정



아카시교회 이성우 명예목사

2019년부터 히메지약수교회 설교목사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일을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도 좋고 생활에 도움도 됩니다.

설교봉사 기간(5년)이 끝나면 자연으로 돌아가 땅을 가꾸면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을 소개하고 있는 e-book, <이것이 선진 일본의 터닝포인트였다>의 계속을 쓸 예정입니다.

<연말 연시 업무 안내>

총회 사무국은 연말 연시를 아래 기간 휴업합니다.

《2023년12월27일~2024년 1 월 4 일》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제15회총회에 참가하여 (2)

정 시 온 전도사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제15차 총회가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도 남부 케랄라 주 코타얌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세계를 회복시키소서 (God, Renew Us in your Spirit, and Restore the Creation)’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예루살렘 마도마(성도마) 교회 예배당과 홀을 행사장으로 회원 교회와 교단, NCC 대표들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과 구미의 에큐메니칼 파트너 등 500여 명이 모였다. 투표권을 가진 대표자는 146명이며, 그 중 여성은 51명, 30세 미만 청년은 34명이었다. 총회 참가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코타얌의 교회와 교단들이 총회 참가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준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CCA 총회의 풍성함은 개회예배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복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었고, 성가대의 찬양에 맞춰 회중은 한 목소리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인 한 가족이며, 한 식탁, 한 잔, 한 빛을 나눈다”고 선언했다. 에 대한 응답, 인간의 존엄성, 피조물에 대한 배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의회의이다. 이번 예배는 CCA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기조연설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제리 필레이 총무는 기후생태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 말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는 메타노이아와 피조물과의 새롭고 공정한 관계로 부름을 받았다” 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견고, 일할 것을 권면했다.

총회에서는 결의를 하는 비즈니스 세션 시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총회 전체에 걸쳐 주연 강연과 3개의 부 주제 강연이 진행되었고, 연사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주제를 다루었다. 주제, 부 주제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 15개의 다양한 주제 중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 총회의 특별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차차’ (Churcha, 말라라얌어로 ‘토론, 생각, 의견 등의 공유’ 라는 뜻) 세션이 있었다. 나는 부주제와 가장 가까운 ‘충만한 삶과 창조의 회복의 신학’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충만한 후손과 창조 회복의 신학’은 ‘하나님의 선교’ 에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는 교회의 소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땅을 섬기는 자로서 교회의 소명을 확인하는 ‘지구를 지키는 자(earth-keepers)’ 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총회의 주제 속에 ‘새롭게 하다(renew)’와 ‘회복(restore)’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듯이, 기후 위기에 직면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우리 인간은 이익과 사회 성장에 집중하느라 피조물 전체에 대한 생명에 대한 배려를 잊어버리거나 외면해 왔다. 그러므로 사회윤리와 생태윤리에 관심을 갖고 박탈, 배

제, 분열에 대항하는 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일요일은 아시아 기도의 날로 55개 그룹으로 나뉘어 코타얌과 그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아시아 기도의 날은 매년 성령강림절 전 주일에 진행되는데, 올해는 총회를 맞아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현지 교회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케랄라 주의 유서 깊은 교회의 풍부한 전례 전통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케랄라 주는 인도의 모든 주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이다. 인도에 기독교를 전한 것은 12사도 중 한 명인 성 토마스라고 전해진다. 서기 52년 남인도 서해안(현 케랄라 주 북부 말라바르 해안)에 온 성 토마스는 말라바르 바다 일대에 7개의 교회를 세웠고, 이후 동해안으로 이동해 마드라스(현 첸나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튜 조지 추나카라 총무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총회인 자카르타 총회 이후 1년간 총 224개의 프로그램이 개최되어 총 9,693명이 참가했다. 이번 총회는 그동안 CCA가 걸어온 에큐메니칼 행보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총무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시아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치라는 공동의 증언을 이루기 위해 계속 여정을 이어가자” 고 말했다.

인도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CCA 총회에서 보고 배운 것을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점점 더 다양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CCA 실행위원회에 선출된 한 위원으로서 아시아 교회의 다양한 문제와 과제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재일대한국교회에도 요청을 하고자 한다.



2024年度 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

「2024年度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を以下のよう implements. 詳細の案内と請願書などは総会のホームページ (<http://kccj.jp>) をご参照ください.

- 一. 日 時 : 2024年3月11日 (月)
 - ・ 10 : 00 ~ オリエンテーション
 - ・ 10 : 30 ~ 17 : 00 筆記試験
 - ・ 17 : 00 ~ 面接

* 試験終了後、順次面接を行います。

- 二. 場 所 : 在日韓国基督教會館 (KCC)
- 三. 申請(書類提出) : 2024年2月12日(月)(必着) 総会事務局
- 四. 提出先 : 総会事務局
 -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55
 - 電話番号 (03)3202-5398 FAX (03)3202-4977
 - 神学考試委員會
 - 委員長 金聖孝、書記 朴榮子
 - (問い合わせ TEL 090-6677-3492)